

# 광주·전남 기업 환율 급등 '희비'

### 기아차 10원 오를때 320억씩 매출 상승 효과

### 항공·유화업계 기준환율 초과편 환차손 '울상'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면서 광주·전남 지역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전자 등 수출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들은 환율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지만 항공·정유업체들은 유가에 이어 환율이라는 복병까지 나타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환율 10원 오르면 연간 320억원 매출상승 효과=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지난해 35만대를 생산, 이 가운데 70%인 23만대를 수출했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이 997.30원으로 지난해 평균환율(928.9원)보다 70원 가까이 상

승했다"면서 "환율이 10원 상승할 경우 연간 320억원의 매출상승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주물제품·단조제품·알루미늄·플라스틱·고무·철관 등 자동차에 쓰이는 원자재의 가격이 크게 올라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납품이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는 한편 원가절감 노력을 올해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광주전자의 경우 올해 초 환율을 800원 후반대에서 900원대 초반으로 설정하고 경영계획을 세웠으나, 뜻하지 않게 환율이 1천원선까지 급등하자 수출물량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연간 3천억원 상승한다고 볼 때 삼성광주전자는 130억원 상승효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 인상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효과가 밖에서 예상하는 것 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유화업계는 울상=아시아나항공은 올해 경영목표를 세울 때 기준환율을 910원으로 잡았으며 10원 오를 때마다 15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인 환헤지를 하고 있으며 국내선 가운데 적자노선을 일부 정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올해 경영계획에 환율을 920원으로 잡은 대한항공은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2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동결 선인까지 할 정도로 최근 고유가와 환율

상승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유가나 환율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초에 유가는 80~90달러, 환율은 900원 초반~후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업계획을 세워놨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업체 특성상 일단 원유도입 비용이 높아지는데 고민이 있다"면서 "정유사는 유전스를 통해 원유도입대금을 결제하는데 유전스는 원유점제와 판매시점에 결제할 수 있도록 은행이 대납하고 60~90일 후에 결제하게 돼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은 997.3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2006년 1월18일 이후 26개월만에 990원대로 상승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광주일보-여경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백영훈 한국개발연구원장 특강



14일 열린 '제 30회 여성경제인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백영훈 한국개발연구원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위적량기자 jwji@kwangju.co.kr

### "부단한 경영혁신, '지구형 기업' 키워라"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은 "지구촌 기업시대"로 일컬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여성기업인들이 발전하려면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해 경영기반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지난 14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 30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에 강사로 나선 백 원장은 "기술혁신"과 "여성경제인의 의무"를 강조했다.

"21세기 한민족시대 여성경제인의 비전과 선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백 원장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기업이 살고,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중심에서 한국적인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열려있는 한민족의 세계화 시대를

이룩하는 대열과 여성경제인들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지구형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눈길을 끌었다.

문화·종교·교육·기후 등과 같은 기호들이 공통화되면서 지구형 상품의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각종 경영자원 역시 이동이 가속화되고 각국의 상호 의존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지구형 기업'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형 기업'은 세계의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해 왔다 뒤 지구형 상품을 개발하고, 다시 세계시장에 판매해 이윤을 쟁긴다는 논리다.

백 원장은 "지구형 기업시대에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아니라 '범위의 경제(E-

conomy of Scope)'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흐름을 고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경제인들도 부품·공정하청 등 이른바 로컬컨텐츠의 비율을 확대하고 현재의 사회구조 안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또 "지역에 있다고 지역만을 겨냥할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성경제인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며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한차원 높은 곳을 바라보고 도전할 때만이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광주·전남지회 100여명의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참석, 백 원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수입 쇠고기 국산 둔감 '꼼짝마'

### 농관원, 식육업소 대상 대대적 단속 나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국산으로 둔감시켜 폭리를 취하는 불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17일부터 5월말까지 전국 2만9천여개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400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만7천여명이 투입된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법을 활용, 수입산과 한우를 가려낸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연필뉴스

## 친환경 생물농약 공급 늘었다

### 농협전남본부, 작년 31억원... 전년보다 8배 급증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친환경농업 실천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화학농약 공급량을 줄이고 친환경 생물농약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본부가 공급한 친환경 생물농약은 31억2천600만원으로, 2006년 3억7천200만원에 비해 8배(27억5천400만원)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전국 공급량 91억3천만원의 32.4%에 달한다.

전남본부는 올해에도 친환경 생물농약 보급을 위해 지난 14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일선농협 농약담당자 500여명을 초청, 농약 오남용 방지와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값싸고 질 좋은 저독성 농약 사용확대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무한봉사 등을 결의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농협광주본부, 주말농장 16곳 분양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주말농장 운영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하고 동시에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장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광주본부가 마련한 주말농장은 채소류 농장 11곳, 과수원 4곳, 목장 1곳 등 16곳이며 광산구 6개소, 북구 5개소, 서구 3개소, 남구 2개소 등 도심에 고루 분포한다.

분양규모는 주말농장 1만3천400평

(2천680평), 주말과수원 1천900평(380평), 주말목장 20마리(20평) 규모로 분양기간은 분양일로부터 1년이다.

분양신청은 3월 한달간 농협 주말농장 홈페이지(www.weekfarm.co.kr), 전화(062-603-6551), 서면신청 등을 통해 받으며 분양가격은 5평 기준 7만원이다. 문의 (062)603-6551.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근로장려세제 홍보

### 순천세무서, 광양매화축제

순천세무서(서장 신규석)는 지난 14일 제12회 광양매화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양시 다압면 삼진강변 매화마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근로장려세제 홍보를 실시했다.(사진)

이날 직원들은 내년에 처음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금액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홍보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56개 대학·기관 연구장비

### 중소 공동 이용 8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전국 56개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지정된 56개 대학과 연구기관의 고가 장비를 활용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장비

이용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중기청 측은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중 한 곳을 택해 참여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장비사용 배부처를 구입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장비·인력 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을 참조하면 된다.

/연필뉴스

## 보해양조 주총

### 작년 순익 60억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지난 14일 보해 목포공장 회의실에서 '제 5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보해는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보통주는 1주당 400원, 우선주는 1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순 매출액 1천255억원, 당기 순이익 60억원 등을 기록한 2007년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또 이날 주총에서는 김준성 광주지점장을 이사로, 이병우 홍보실 업무담당부장을 이사로 임명 승진시키는 안건을 결의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장수온돌침대**

시원 4인식탁 ₩ 690,000 (최소현금)

하이파라화생용가구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

**모디쉬갤러리**

시원 4인식탁 ₩ 690,000 (최소현금)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